



2026
05.14
주간 제473호

중국 창업

WEEKLY 뉴스
CHINA 창업
KIC 뉴스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

문의 | +86.10.6780.8840 | info@kicchina.org

WEEKLY 뉴스

피지컬 AI 투자금 300억 위안 도달, 완성형 로봇 기업에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	1
1kWh 그린전력 '3단계 도약', 에너지 생산 지역의 산업 고도화	3
암흑물질 입자 탐사 위성 '우쿱' 성과 발표, 지구 인근에 '초고에너지 입자 가속기' 존재	4
中 첫 대규모 '연산-전력 연계' 녹색전력공급사업, 중웨이서 가동	5

CHINA 창업

[산업분석] 유비텍 피지컬 AI '월드모델' 공개	8
[산업분석] '아너(Honor)' 로봇 이끈 중국 공급망 7개 기업	14
[기업분석] 휴머노이드 로봇 선두 기업-유트리(宇树科技)	22
[지역분석] 안휘성 허페이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양자대로'	26

KIC 뉴스

2026 WRC 연계 한중 로봇 혁신 파트너십 워크 모집 공고	31
------------------------------------	----

행사 정보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32
------------------	----

WEEKLY 뉴스



피지컬 AI 투자금 300 억 위안 도달, 완성형 로봇 기업에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	1
1kWh 그린전력 '3 단계 도약', 에너지 생산 지역의 산업 고도화	3
암흑물질 입자 탐사 위성 '우쿱' 성과 발표, 지구 인근에 '초고에너지 입자 가속기' 존재	4
中 첫 대규모 '연산-전력 연계' 녹색전력공급사업, 중웨이서 가동	5



피지컬 AI 투자금 300억 위안 도달, 완성형 로봇 기업에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

2026년 들어 피지컬 AI 분야의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커창반일보(科创板日报)>에 따르면, 4월 10일 기준 관련 분야의 누적 투자 규모는 345억 위안을 넘어섰고, 공개된 투자 건수는 122건으로 집계됐다. 자금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완성형 로봇 기업에 집중 유입됐던 투자금이 최근에는 관절 모듈, 센서, 다관절 로봇핸드, 피지컬 AI 두뇌, RaaS 플랫폼 등으로 분산되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자금이 완성형 로봇 기업에 집중됐던 흐름과 달리, 최근에는 관절 모듈, 센서, 다관절 로봇핸드, 피지컬 AI 모델, RaaS 플랫폼 등 산업 전반으로 투자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관절 모듈 분야에서는 모토레보(Motorevo, 泉智博)가 4월 수억 위안 규모의 A++ 라운드 투자를 유치하며, 총 6건의 투자 유치를 기록했다. 2025년 출하량은 10만 대를 넘었고, 신규 자동화 생산라인은 연간 100만 대 규모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샤오상일렉트릭(小象电动)은 1억 위안 이상 규모의 Pre-A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으며, 자금은 모터 생산 확대와 관절 모듈 성능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센서 분야에서는 케플러(KEPLER, 开普勒机器人)가 중국 최초로 VTLA 기반 힘·촉각 통합 인식 시스템을 선보였고, 4월에는 역대 A++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링크터치(LinkTouch, 蓝点触控)는 같은 달 1억 위안 이상 규모의 C+ 라운드 투자를 확보했으며, 소폰포스(SophonForce, 智子力控)는 4월 내 두 차례 투자를 마쳤다.

다관절 로봇핸드 분야에서는 링커핸드(Linker Hand, 灵心巧手)의 월 출하량이 4,000대를 넘어섰으며, 고자유도 제품 시장에서도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한 약 15억 위안 규모의 B 라운드 투자 이후 4월 말 B+ 라운드 투자를 추가 확보했으며, 생산 규모는 월 1만 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피지컬 AI 모델 분야에서는 2026년 1~3월 누적 투자 규모가 104억 위안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연간 투자 규모에 가까운 수준이다. 스피리트 AI(Spirit AI, 千寻智能)는 최근 두 달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총 30억 위안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최근 A 라운드에서는 약 10억 위안을 확보했으며, 순웨이캐피털(顺为资本)과 윈펑펀드(云锋基金)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 타스(TARS, 它石智航)는 4월 4억 5,500만 달러 규모의 Pre-A 라운드 투자를 마무리했다.

RaaS 플랫폼 역시 상용화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지봇(AGIBOT, 智元机器人) 산하 '봇셰어(BotShare, 擎天租)'는 6개월 만에 시드 단계에서 Pre-A 단계로 빠르게 올라섰다. 현재 4,000대 이상의 로봇을 운영하고 10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대기업과 스타트업도 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징둥(京东)은 자체 로봇 렌탈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완지이주(万机易租), 지스주(机时租) 등 플랫폼도 잇따라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투자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구조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딩캐피탈(新鼎资本)은 2026년을 기점으로 구조조정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00여 개에 달하는 로봇 기업 가운데 결국 10~20곳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업계 전반의 수익성 확보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비텍(UBTECH, 优必选)은 2025년 7억 9천만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원로보틱스(OneRobotics, 皖安机器人)도 2,726만 위안의 적자를 냈다. 흑자를 내는 기업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한편 해외 시장 확대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봇셰어(BotShare)는 글로벌 네트워크 '쉐어봇(SHAREBOT)'을 구축했으며, 사업 범위를 13개국까지 넓혔다. 유럽(독일 중심)에서는 '링스(Linx, 灵犀) X2' 로봇의 일일 렌탈료가 약 2,000~3,000유로에 달하고, 북미에서는 '위안정(远征) A2·A3' 시리즈의 일일 렌탈료가 최대 6,000달러에 이른다.

업계는 2026년을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경쟁의 중심도 단일 제품에서 벗어나, 창고 운영,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운영 서비스를 아우르는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출처: 차이렌서)

1kWh 그린전력 '3단계 도약', 에너지 생산 지역의 산업 고도화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네이멍구(内蒙古)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497억 kWh 로 집계됐다.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4%로, '14차 5개년 계획' 초기보다 14.9%p 상승했다. 풍력·태양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발전 역량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네이멍구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억 7천만 kW 이상에 달하며, 2025년 발전량도 2,700억 kWh 를 넘어서며 중국 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1kWh의 그린 전력이 '3단계 도약'을 거치며 고에너지 소비 산업에 투입되고 AI 연산 인프라를 가동하며, 나아가 친환경 연료로 전환돼 글로벌 저탄소 무역에도 활용되고 있다.

■ 1단계 도약: 그린 전력으로 고에너지 산업 전환, '탄소 부담'을 경쟁력으로

훙린궈러시(霍林郭勒市)는 과거 중국 북부의 대표적인 알루미늄 산업 거점으로, 전해 알루미늄 공정에서 탄소 배출이 대량 발생했던 지역이었다. 반면 현재는 배전망 확충과 그린 전력 직공급 시범 사업을 통해 풍력 전력을 전해 알루미늄 생산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린 전력 사용 비중은 65% 이상에 달하고, 62개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네이멍구 북방알루미늄(北方铝业)은 저렴한 그린 전력을 기반으로 두께 0.012mm의 알루미늄 포일을 생산해 중국 및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지하이양(嵇海洋) 훙린궈러시 서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2020년 6%에서 지난해 45%로 높아졌으며, 친환경 알루미늄 신소재 산업이 지역의 첨단 제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 2단계 도약: 그린 전력으로 연산 자원 확대, '그린 와트'를 '연산 가치'로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의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데이터센터에서는 수십만 대의 서버가 '전원-전력망-부하-저장 통합화' 구조를 통해 수십 km 떨어진 풍력발전소에서 그린 전력을 직접 공급받고 있다. 센터의 총 연산 규모는 2.01만 P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능형 연산이 1.67만 P를 차지하고, 전체 전력의 88%를 그린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린 전력 1kWh를 외부로 송전하면 수익은 크지 않지만 이를 연산에 활용해 토큰을 생성하면 부가가치는 수십 배로 높아진다. 이로 인해 그린 전력을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지역 내 청정에너지 활용을 늘리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연산 자원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 3단계 도약: 그린 전력으로 수소 생산, '자연 에너지'를 '액체 연료'로

엔비전(Envision, 远景)의 츠핑(赤峰) 그린 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풍력 및 태양광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공기 중 질소를 분리해 그린 암모니아를 합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출력이 일정하지 않은 그린 전력을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안정적인 액체 연료로 전환한다. 올해 2월 이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그린 합성 암모니아가 처음으로 한국으로 수출되면서, 저탄소 무역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올해 들어 그린 전력의 '3단계 도약'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다탕(大唐) 국제 후허하오터 알루미늄전력 회사의 전해 알루미늄 그린전력 직공급 프로젝트가 체결됐다. 동시에 <네이멍구 자치구 단일 전력 사용자 대상 그린전력 직공급 사업 추진 방안(시범)(内蒙古自治区单一电力用户绿电直连项目开发建设实施方案(试行))> 등 관련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며, 그린 전력의 지역 내 활용을 가로막던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처럼 1kWh 그린 전력의 '3단계 도약'은 에너지 생산 지역이 친환경 전환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중귀커지망)

■ 암흑물질 입자 탐사 위성 '우쿵' 성과 발표, 지구 인근에 '초고에너지 입자 가속기' 존재

암흑물질 입자 탐사 위성 '우쿵(悟空)'의 글로벌 공동 연구진이 지난 4월 30일 최근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위성 관측을 통해 우주 입자가 도달하는 에너지 수준이 전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으며, 지구 인근에 초고에너지 입자를 만들어내는 가속원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관련 논문은 이달 29일 <네이처(自然)>에 실렸다.

연구진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성자, 헬륨, 탄소, 산소, 철 등 다섯 종류 입자의 에너지 분포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입자가 특정 에너지 구간을 넘어서면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공통적으로 '봉우리' 형태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에서는 입자의 에너지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질량이 아니라 전하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전하가 클수록 더 높은 에너지까지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하에 따라 가속 정도가 달라진다'는 1960년대 이론을 실제 관측으로 뒷받침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결과는 지구 인근 우주 공간에 자연적인 '초고에너지 입자 가속기'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에너지 분포에서 나타난 급격한 감소 구간을 가속 능력 한계의 흔적으로 해석했다. 또 기존 우주선 유입 방향을 분석한 연구와 종합해보면, 이 가속원은 은하 중심과는 다른 방향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쿱(悟空)' 위성은 2015년 말 발사되었으며, 10년 넘게 운용되며 약 185억 건의 고에너지 입자 데이터를 확보했다. 주요 임무는 우주 고에너지 입자를 정밀 관측해 암흑물질의 존재 증거를 찾고, 우주 고에너지 입자의 기원과 이동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다. 우쿱은 해외 유사 장비 보다 관측 가능한 에너지 범위가 넓고, 에너지 측정 정확도가 높으며, 입자 구분 능력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출처: 신화서)

中 첫 대규모 '연산-전력 연계' 녹색전력공급사업, 중웨에서 가동

5월 2일 중국 최초의 대규모 '연산-전력 연계' 기반 녹색전력 직공급 프로젝트인 '다탕(大唐) 중웨이(中工) 클라우드 기지 500MW 태양광 발전소'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국가 '동수서산(东数西算)' 전략의 일환으로, 사막 지역의 풍력·태양광 발전 자원을 디지털 연산 수요와 직접 연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경제 성장과 함께 연산 인프라의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 통합 연산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인 닝샤(宁夏) 중웨이(中工)는 전체 발전 설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률도 94%에 이른다. 여기에 기후와 입지 조건 역시 데이터 산업 추진에 적합해 중국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종합 시범구로 지정됐다. 업계에서는 중웨이가 연산-전력 연계 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다탕(大唐) 닝샤 법인이 추진했다. 1단계 사업 규모는 총 200만 kW, 투자 규모는 87억 위안이다. 이와 함께 50만 kW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와 150만 kW 규모 풍력 발전 설비도 조성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전용 송전망 기반 직접 공급 방식과 전력시장 양자 거래를 결합한 복합 전력 공급 체계다. 데이터센터의 신규 전력 수요에는 별도 송전선을 구축해, 태양광 전력을 기존 대형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고, 잉여 전력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다.

기존 전력 수요는 전력시장 양자 거래 방식을 적용해, 추가 설비 투자 비용을 낮췄다. 태양광 발전

이 가능한 시간대에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전력을 직접 공급하고, 발전이 어려운 시간대에는 풍력 발전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연산 인프라 단지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녹색 전력을 공급하고, 기업의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0만 kW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이미 계통 연결과 송전을 완료했으며, 150만 kW 규모 풍력 발전 설비는 2026년 9월 전면 가동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매년 중웨이(中工) 클라우드 기지의 약 22억9000만 kWh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단계 사업도 추진된다. 전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총 설비 규모는 460만 kW, 총 투자 규모는 약 2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출처: 신랑차이징)

참고자료

- ◆ 차이렌서(财联社). 피지컬 AI 투자금 300억 위안 도달, 완성형 로봇 기업에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
<https://www.cls.cn/detail/2363089>
- ◆ 중귀커지망(中国科技网). 1kWh 그린전력 '3 단계 도약', 에너지 생산 지역의 산업 고도화
https://www.stdaily.com/web/gdxw/2026-05/06/content_512013.html
- ◆ 신화서(新华社). 암흑물질탐측위성 '우쿱' 성과 발표, 지구 인근에 '초고에너지 입자 가속기' 존재
<https://baijiahao.baidu.com/s?id=1863862826038492712&wfr=spider&for=pc>
- ◆ 신랑차이징(新浪财经). 中 첫 대규모 '연산-전력 연계' 녹색전력공급사업, 중웨이(中工)서 가동
<https://baijiahao.baidu.com/s?id=1864093024329348234&wfr=spider&for=pc>

CHINA 창업



[산업분석] 유비텍 피지컬 AI '월드모델' 공개	8
[산업분석] '아너(Honor)' 로봇 이끈 중국 공급망 7개 기업	14
[기업분석] 휴머노이드 로봇 선두 기업-유니트리(宇树科技)	22
[지역분석] 안휘성 허페이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양자대로'	26



[산업분석] 유비텍, 피지컬 AI '월드모델' 공개

피지컬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환경 인식과 명령 이해, 작업 계획 수립 능력도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기존 피지컬 모델은 변수가 많은 생산 현장에서 여전히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모델은 정해진 조건에 따른 의사결정과 단거리 작업 처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물리 세계에 대한 상황을 추론하거나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작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판단과 실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작업 체계 역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유비텍(UBTECH, 优必选)은 자체 개발한 피지컬 AI 대형모델 'Thinker'를 기반으로 새로운 월드 모델 'Thinker-WM'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물리 AI 기반을 구축하고, 피지컬 AI '두뇌' 아키텍처와 핵심 기능을 전면 고도화했다. Thinker-WM은 권위 있는 피지컬 AI 성능 평가지표 리베로(Libero)에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해당 평가에는 엔디비아(NVIDIA), 피지컬 인텔리전스(Physical Intelligence), 샤오미(Xiaomi) 등 주요 기업들도 참여했다.

유비텍은 축적된 산업 현장 데이터와 아키텍처 최적화 기술을 바탕으로, Diffusion Transformer 기반의 통합 멀티모달 구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Flow Matching 기반 최적화 과정에서 영상 정보와 로봇 동작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동작 생성의 자연스러움과 연속성도 크게 향상됐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복잡하고 장기적인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중국 각지에 구축된 휴머노이드 로봇 데이터 수집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 분류, 물류 운반, 정밀 작업, 양팔 협업 등 다양한 현장의 고품질 실환경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정제와 멀티모달 정렬, 단계별 품질 검증을 거쳐 높은 가치를 지닌 샘플만 선별 및 보존된다. 이를 통해 실제 물리 법칙과 객체 간 상호작용 방식, 산업 현장의 동적 특성을 학습할 수 있으며, 가상 데이터가 실제 작업 환경과 괴리되는 문제도 줄었다는 설명이다.



■ Libero 정상 오른 Thinker-WM, 장기 작업 수행 성능 입증

Thinker-WM 은 새로운 멀티모달 융합 아키텍처와 자율 학습 진화 성능을 바탕으로, 권위 있는 피지컬 AI 평가 지표인 Libero 에서 1위를 기록했다. Libero 는 지속 학습과 범용 작업 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벤치마크로, 환경 범용성, 객체 범용성, 장기 작업 수행 능력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모델은 환경·객체 범용성 영역에서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장기 작업 수행은 여전히 난제로 꼽힌다. Thinker-WM 은 강력한 상황 추론과 동적 예측 능력을 바탕으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태 변화와 오차 누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며 현시점 최고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다. 다만 환경·객체 범용성 측면에서는 아직 추가 보완이 필요한 단계이며, 향후에는 데이터 고도화와 아키텍처 최적화를 통해 관련 성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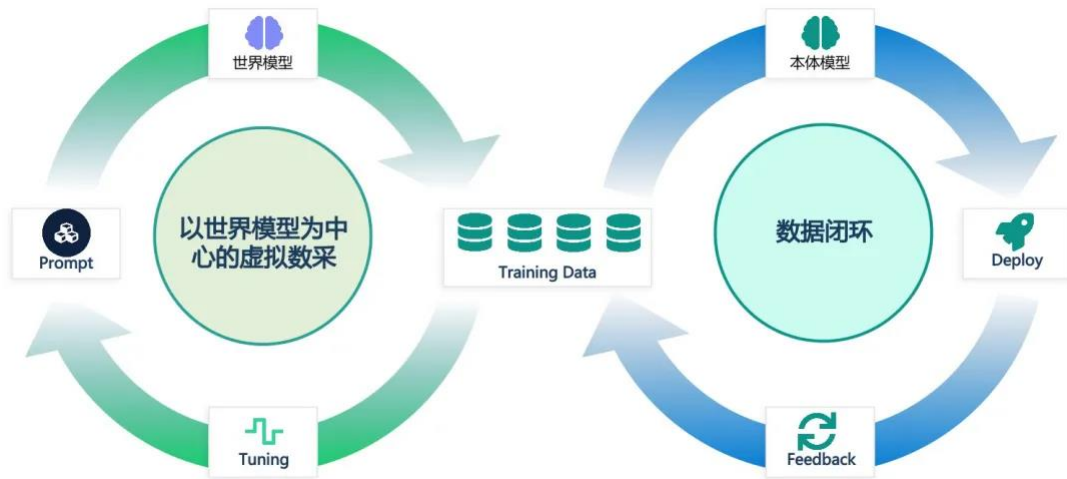
task_name	LingBo-VA		Motus				Thinker-WM			
	clean	randomized	clean	randomized	PSNR	SSIM	clean	randomized	PSNR	SSIM
Adjust Bottle	90%	94%	89%	93%	22.17	0.8679	100%	100%	22.76	0.8823
Click Alarmclock	99%	100%	100%	100%	21.66	0.8920	100%	100%	23.62	0.8951
Click Bell	100%	100%	100%	100%	22.30	0.8552	100%	100%	24.61	0.9071
Dump Bin Bigbin	89%	96%	95%	91%	22.47	0.8763	93%	90%	23.47	0.8773
Grab Roller	100%	100%	100%	100%	21.68	0.8648	100%	99%	24.27	0.9201
Handover Mic	94%	96%	78%	63%	20.70	0.8733	97%	94%	23.34	0.8925
Lift Pot	100%	99%	96%	99%	22.30	0.8398	100%	100%	22.88	0.8437
Place Burger Fries	97%	95%	98%	98%	22.07	0.8551	98%	94%	23.04	0.87374
Place Empty Cup	100%	100%	99%	98%	26.47	0.9249	100%	97%	24.74	0.9136
Place Shoe	98%	98%	99%	97%	22.52	0.8734	99%	96%	22.98	0.8922
Press Stapler	85%	82%	93%	98%	20.95	0.8648	95%	90%	24.85	0.9098

Robotwin 평가에서는 가정과 사무실 환경을 대상으로, 동작 수행 정확도와 경로 안정성, 생성 영상의 시각적 품질(PSNR·SSIM) 등 주요 지표에서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환경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밀 작업과 영상 생성 능력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월드모델 기반 AI 데이터 선순환 구축, 실환경·가상 연계 학습 체계 구현

현재 업계에서는 실환경 데이터 확보 비용이 높고, 위험 환경에서는 데이터 수집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드물게 발생하는 사례 데이터도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 과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기존 학습 방식만으로는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정밀 제어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유비텍은 월드모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데이터 생성과 학습 체계를 새롭게 구성해, AI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데이터와 모델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능을 높여가는 구조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 실환경 데이터 기반 학습으로 범용성 강화, 적은 데이터로도 고성능 구현

소량의 고품질 로봇 데이터를 활용해 물리적 상호작용의 기준을 정밀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작업 데이터만으로도 동일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이동 경로를 반영한 고정밀 가상 데이터를 10개 이상 생성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대규모 라벨링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학습 비용 절감과 범용성 향상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는 평가다.



➤ 가상 데이터 확장으로 데이터 한계 보완, 실환경·가상 융합 학습 고도화

차세대 모델은 학습한 물리적 세계의 규칙을 기반으로 대규모 고정밀 가상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장비 환경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극한 작업 조건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상황, 드물게 발생하는 작업 환경 등 부족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환경과 조명, 물체 위치와 자세, 이동 경로 등을 상황에 맞게 생성할 수 있어 데이터 규모와 다양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

▶ 선순환 구조 구축, VLA와 월드모델 상호 고도화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체계는 실환경 데이터 보정부터 월드모델 기반 데이터 생성, 고품질 데이터 재투입, VLA 전략 최적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이를 통해 데이터 생성과 학습, 실행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월드모델이 생성한 가상 데이터는 VLA 모델 학습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VLA의 정밀 제어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 복합 작업 수행 성능을 강화할 수 있다. 동시에 기존 VLA 모델이 안고 있던 제한적인 학습 데이터와 상황 변화 대응 한계, 특정 환경 중심의 범용성 문제 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실제 작업 과정에서 VLA가 새롭게 축적한 상호작용 데이터와 실패 사례는 다시 월드모델 학습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물리적 추론 정확도와 시뮬레이션 환경 구현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가상 데이터 역시 실제 산업 현장에 더욱 가까운 형태로 고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AI 데이터 선순환 체계로 모델 고도화, 범용 피지컬 AI 상용화 추진

유비텍의 Thinker-WM은 '실환경 데이터 기반 학습-가상 데이터 확장-모델 상호 고도화'로 구조를 통해, 기존의 단순 데이터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모델이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술을 학습하며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속적인 환경 상호작용과 데이터 순환을 통해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용 범위도 넓혀갈 수 있다.

유비텍은 기술 개방 전략도 확대하고 있다. 조만간 피지컬 AI 개발자 커뮤니티 'Thinker-Cosmos'를 통해 Thinker-WM 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글로벌 개발자들과 함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에 나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전반 확산과 대규모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참고자료

- ◆ 유비텍테크(优必选科技). 유비텍 피지컬 AI '월드모델' 공개
<https://mp.weixin.qq.com/s/azMcZFgEeGETXTH76N6vTw>

[산업분석] '아너(Honor)' 로봇 이끈 중국 공급망 7개 기업

4월 19일 베이징 이창(亦庄)에서 열린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아너(Honor, 荣耀)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덴(闪电:Thunder)'이 50분 26초의 주파 기록으로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아너(Honor) 로봇들은 이번 대회에서 모두 1~6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중국 공급망 기업들의 협업 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기가디바이스(GigaDevice, 兆易创新), 링이아이텍(Lingyi iTech, 领益智造), 렌스테크(Lens Technology, 蓝思科技), AAC 테크놀로지스(AAC Technologies, 瑞声科技), 오르벡(Orbbec, 奥比中光), 허사이(Hesai Technology, 禾赛科技), 화커링신(华科冷芯) 등 7개 기업은 센서와 제어, 구동 시스템 전반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 기가디바이스

'산덴(闪电)' 로봇에는 장거리 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다리 관절 구동 모듈이 적용됐으며, 여기에는 기가디바이스(GigaDevice)의 GD32H757 MCU가 적용됐다.

GD32H757에는 Arm Cortex-M7 기반 프로세서가 적용됐으며, 최대 600MHz 동작 속도를 지원한다. 배정밀도 부동소수점연산장치(FPU)와 자체 삼각함수 장치(TMU), 필터 연산 가속기(FAC)도 함께 탑재돼 PWM 구동 신호를 마이크로초 단위로 빠르게 생성 및 조정할 수 있다. 메모리는 3840KB 플래시와 1024KB SRAM, 512KB 규모의 TCM 으로 구성돼, 중요한 명령을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여러 관절을 동시에 제어하기 위해 CAN-FD 등 산업용 통신 인터페이스도 함께 적용했다. 이를 통해 각 관절의 움직임을 지연 없이 동시에 제어할 수 있으며, EtherCAT 통신을 지원하는 버전도 제공된다. 이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과 보행을 더욱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차세대 GD32H7 시리즈는 동작 주파수를 최대 750MHz 까지 높였고, CPU와 동일한 속도로 작동하는 640KB 규모의 TCM 메모리를 적용했다. DC 동기화 주기 정밀도는 62.5마이크로초 수준이다.

기가디바이스(GigaDevice)는 MCU 공급을 넘어 인식과 판단, 제어, 실행 전 과정을 아우르는 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GD32 시리즈 외에도 플래시 메모리는 연산 과정에서 데이터의 안정성을 담당하며, 아날로그 제품군은 센서 신호 처리와 모터 구동, 전원 관리 등을 지원해 MCU와 함께 통합 모터 제어 체계를 구성한다.

기가디바이스(GigaDevice)는 MCU와 메모리, 아날로그 반도체를 결합한 통합 설계를 기반으로 현재 75개 시리즈, 800종 이상의 MCU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산업, 자동차, 에너지 분야에서 축적한 양산 경험을 피지컬 AI 분야에 적용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위한 칩 선정부터 시스템 통합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링이아이텍

링이아이텍(Lingyi iTech, 领益智造)은 '산덴(闪电)' 로봇에 159종의 핵심 금속 구조 부품을 공급했다. 해당 부품은 골반과 다리, 발, 몸체 등 주요 구동 부위 전반에 적용됐다.



이들 부품은 21km 코스를 완주하는 과정에서도 고장이나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했으며, 로봇 하중과 주행 충격에도 변형이나 유격 없이 내구성을 유지했다.

링이아이텍은 구조 부품뿐 아니라 서보모터와 감속기, 드라이버, 모션 컨트롤러 등 핵심 구동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로봇 헤드와 다관절 로봇핸드, 팔·다리 모듈, 방열 솔루션 등을 공급하고 있다.

베이징 피지컬 AI 슈퍼팩토리에서는 첫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이 시작됐다. 생산 규모는 2026년 연간 1만 대, 2030년에는 50만 대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써 링이아이텍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공급망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 렌스 테크

렌스 테크(Lens Technology, 蓝思科技)는 '위안치자이(元气仔)' 로봇에 132종의 핵심 금속 구조 부품을 공급했다. 부품은 머리와 팔, 골반, 다리 등 주요 구동 부위에 적용됐다.

소재에는 고강도 강재가 사용됐다. 특수 진공 열처리 공정을 거쳐 경도 60HRC, 인장 강도 2,400MPa 이상의 성능을 구현했으며,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해 장시간 고강도 동작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공에는 5축 연동 정밀 가공 기술이 적용됐다. 한 번의 고정 작업만으로 복잡한곡면 가공을 수행할 수 있으며, 선삭·밀링 복합 연속 가공 기술을 통해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함으로써 관절 움직임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렌스 테크 측이 공개한 2025년 실적에 따르면 스마트 로봇 사업 매출은 지난해 10억 위안을 넘어섰다. 또한 웅안(永安) 산업단지에서는 연간 50만 대 규모 생산 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태국 생산기지 증설도 함께 진행 중이다.

■ AAC 테크

AAC 테크(AAC Technologies, 瑞声科技)는 아너(Honor) 로봇에 헤드와 다리 등 주요 구동 부위용 정밀 구조 부품을 공급했다. 항공용 알루미늄과 베어링강, 탄소섬유, 유리섬유 등을 복합 적용해 경량화와 강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MIM(금속사출성형)과 CNC(컴퓨터 수치제어) 가공 기술을 활용해 고속 보행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모와 정밀도 저하 문제를 개선했다.



AAC 테크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제품군에는 구동 관절과 다관절 로봇핸드, 6축 힘 센서, IMU(관성측정장치), 초소형 마이크 어레이 등이 포함된다. 특히 힘줄 구동 방식의 고자유도 로봇핸드는 18개의 독립 구동 축과 22개 관절 구조를 갖췄다. AAC 테크 측은 해당 제품이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으며, 2025년 기준 관련 매출이 1억 위안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오르벡

오르벡(Orbbec, 奥比中光)은 아너(Honor) 로봇에 Gemini 330 시리즈 양안식 3D 카메라를 공급했다. 이 제품은 로봇 비전 전용으로 설계됐으며, 자체 개발한 MX6800 깊이 정보 처리칩과 능동·수동 융합 영상 시스템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실내·외와 복잡한 조명 환경에서도 고해상도 깊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Gemini 330 시리즈는 경사 구간과 급회전 구간, 좁은 구간 등 10여 종 이상의 지형이 포함된 하프마라톤 코스에서 로봇의 환경 인식을 지원했다.



'3D 비전 대표 기업'으로 불리는 오르벡은 현재 전 세계 1,000곳 이상의 로봇 기업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유비텍(UBTECH)과 러쥬로봇(LEJU Robot) 등 주요 로봇 기업에 3D 비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아너와 텐궁(天工), 로비앤티(Robbyant) 등에도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재무 데이터에 따르면 오르벡의 2025년 매출은 9억4,1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66.66% 증가했다. 오르벡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 허사이 테크

허사이 테크(Hesai Technology, 禾赛科技)는 '산덴(闪电)' 로봇에 JT128 라이다를 공급했다. JT128은 로봇과 산업용 장비를 위해 개발된 소형 초광각 3D 라이다다.

이 제품은 360°×189° 시야각을 지원하며, 감지 범위는 축구장 1.5개 규모에 달한다. 최소 감지 거리도 0m 수준까지 구현했다. 무게는 200~250g 수준으로, 센서 노출부 높이를 최소화해 로봇 내부 여러 위치에 내장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

JT128은 4세대 자체 개발 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수직 방향 기준 128채널 구성을 적용했다. 플랫폼 기준 최대 256채널까지 확장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정밀 3D SLAM과 위치 인식 및 내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한다.



허사이 테크의 2025년 로봇용 라이다 출하량은 23만9,300대로 전년 대비 425.8% 증가했다. 매출총이익률은 37%를 넘어섰고, 연간 지배주주 순이익은 4억4,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이로써 허사이 테크는 글로벌 라이다 업계 최초로 연간 GAAP 기준 흑자를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모건스탠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25선(人形机器人科技25强)>에도 라이다 기업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 화커링신

화커링신(华科冷芯)은 '산덴(闪电)' 로봇에 자기부상형 펌프 기반 액체 냉각 솔루션을 공급했다. 이 기술은 장시간 고속 주행 환경에서 관절 모터가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펌프에는 자기부상 기술이 적용돼 회전축이 비접촉 상태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기계적 마모를 줄일 수 있다.

이 펌프는 분당 2만 회전 이상의 속도를 구현했으며, 냉각 효율은 기존 방식 대비 3~6배 수준이다. 크기 약 30mm, 무게 100g 이하 조건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다리 관절 모터의 냉각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

충격 대응 성능도 강화됐다. 이 펌프에는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가 적용돼 작동 중 최대 500G 충격까지 견딜 수 있으며, 강한 진동이나 로봇이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펌프 작동이 유지된다.

이번 대회에서 화커링신의 액체 냉각 솔루션은 '산덴' 로봇의 최대 부하 연속 작동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며, 관절 모터가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



현재 화커링신은 자기부상형 마이크로 펌프 양산 라인 구축을 완료했으며, 표준화된 조립·검사 생산라인을 기반으로 월 수천~수만 대 규모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

■ 개별 기술 넘어 공급망 협업으로

기가디바이스(GigaDevice)의 MCU와 링이아이텍(Lingyi iTech), 렌스테크(Lens Technology), AAC 테크놀로지스(AAC Technologies)의 구조 부품, 오르벡(Orbbec)의 3D 카메라, 허사이(Hesai)의 라이다, 화커링신(华科冷芯)의 액체 냉각 기술까지, 아너(Honor) 로봇의 성과 뒤에는 중국 공급망 기업들의 협업 체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2025년 첫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마라톤 당시만 해도 잦은 오류와 완주 실패가 이어졌지만, 불과 1년 만에 로봇은 인간의 세계기록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단계에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빠르게 진화한 셈이다. 이번 마라톤은 휴머노이드 핵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여준 무대이기도 했다. 아너(Honor) 로봇의 우승 뒤에는 개별 기술 경쟁을 넘어 공

급망 전반의 협업 체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 공급망에 참여한 각 기업들이 저마다의 기술과 역할을 바탕으로 중국 스마트 제조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참고자료

- ◆ 가오궁 휴머노이드 로봇(高工人形机器人). '아너(Honor)' 로봇 이끈 중국 공급망 7개 기업
<https://mp.weixin.qq.com/s/vdH6WrkJV4mA4QYanNahA>

[기업분석] 휴머노이드 로봇 선두 기업-유니트리(宇树科技)

UNITREE

기업 개요

유니트리(Unitree, 宇树科技)는 세계적인 민간 로봇 기업으로, 소비자용, 산업용 고성능 범용 사족 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다관절 로봇핸드의 자체 개발, 생산,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유니트리는 2021년 CCTV 춘절 갈라쇼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2023년 미국 슈퍼볼 사전 공연,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아시안패러게임, 2025년 CCTV 춘절 갈라쇼 등 주요 행사에 초청돼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중국 CCTV 뉴스 프로그램인 '신원렌보(新闻联播)' 등 주요 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유니트리는 세계 최초로 고성능 사족보행 로봇을 일반 시장에 판매한 기업이자, 가장 먼저 산업 현장에 본격 적용시킨 기업으로, 글로벌 판매량 역시 오랜 기간 업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유니트리는 로봇의 주요 부품과 모션 제어, 로봇 인식 기술 등 전반에서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유니트리는 자체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에 집중해 왔으며, 모터와 감속기, 제어기, 라이다 등 로봇 핵심 부품을 전부 자체 개발하고 있다. 또한 고성능 인식·모션 제어 알고리즘까지 자체 구축하며 로봇 산업 전반의 기술 체계를 내재화했고, 사족보행 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중국 및 해외에서 2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 가운데 180건 이상이 등록되었다.

로봇

■ 소비자용 / 연구용

			
As2	Go2	Go1	A1

■ 산업용

			
A2	B2	B1	Aliengo

■ 로봇팔

	
Z1	D1-T

■ 센서




	
4D LiDAR L2	4D LiDAR L1

■ 부품





			
A1 모터	GO-M8010-6	SV1-25	R3 리모컨

범용 휴머노이드

■ 범용 휴머노이드

			
H2	R1	G1	H1 / H1-2

■ 응용 솔루션

			
R1-D	G1-D	G1-Comp	복싱왕

■ 다관절 로봇핸드

			
Dex2/5	Dex1-1	Dex5-1	Dex3-1

산업 응용

■ 사족보행 지능형 순찰 솔루션

유니트리의 사족보행 지능형 순찰 솔루션은 위험성이 높고 반복 작업이 많은 저효율 산업 현장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한다. 사족보행 로봇의 전지형 주행 성능과 높은 내구성, AI 기반 인식·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구분	활용 분야
산업 에너지	변전소 순찰·점검, 배관망 순찰·점검, 광산 순찰·점검
스마트 시티	지하철 순찰·점검, 통로 시설 순찰·점검, 산업단지 순찰·점검
교통 수자원	열차 하부 점검, 공항 순찰·점검, 수자원 시설 순찰·점검

■ 응급 소방 대응 솔루션

유니트리의 재난·소방 대응 솔루션은 사족보행 로봇을 기반으로 하며, 첨단 로봇 기술과 실제 소방 대응 환경을 결합해 사람과 로봇이 함께 대응하는 지능형 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 효율을 높이고, 현장 인력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솔루션은 크게 화재 탐지용 모델과 물대포 장착형 로봇으로 구성된다

참고자료

- ◆ 유니트리 웹사이트(宇树科技官网)
<https://www.unitree.com/cn/>

[지역분석] 안휘성 허페이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양자대로'

개요

허페이(合肥) 국가첨단기술개발구에는 '윈페이루(云飞路)'라는 도로가 있다. 현재는 '양자대로(量子大道, Quantum Avenue)'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양자대로는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양자정보 산업의 핵심 발원지이자 산업 랜드마크로 인정 받고 있다. 여기에서 세계 최초 양자과학실험위성 '묵자호(墨子号)', 세계 최초 양자보안통신 간선 '경호간선(京沪干线)', 세계 최초 광양자컴퓨터 '구장(九章)' 등 세계적 성과가 탄생했다. 중국과학기술대학교(USTC) 및 국가양자실험실 등 최고 수준의 연구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자계산·양자통신·양자정밀측정 3대 분야를 전면 커버하는, 중국에서 가장 집약된 양자산업 생태계를 형성했다.

현재 도로 주변에 30여 개 양자기술 선도기업, 70여 개 산업사슬 연계기업이 집중되어 전체 산업생태계를 커버하고 있다.

표. 양자대로 주요 기업 현황

기업명칭	설립연도	규모	업무개요
귀둔양자 (国盾量子)	2009년	A 주 상장기업으로 임직원 약 500 명이며, 중국 양자통신 업계 선도 기업	양자 암호 통신 장비 연구개발, 양자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경호간선, 묵자호 등 국가급 중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양자보안 통신 토털 솔루션을 제공
번위안양자 (本源量子)	2017년	임직원 약 400 명, 특히 3200 여건 보유한 중국양자계산 선도기업	초전도 양자컴퓨터, 양자칩, 양자 운영체제, 양자 클라우드 플랫폼을 연구개발·운영하며, 중국 최초 양자칩 양산 라인을 구축
귀이양자 (国仪量子)	2016년 12월	임직원 약 300 명, 상장 추진 중인 양자정밀측정 분야 리딩 기업	양자정밀측정 기기, 양자센서, 원자자력계, 양자레이더 등 장비를 개발하고 재료, 의료, 산업 검사 등 분야에 공급
중덴신양자 (中电信量子)	2021년	중앙기업 배경의 통신·양자 융합 플랫폼으로 전문 연구인력 200 여 명을 보유	5G와 양자 암호 통신 융합 서비스, 양자 클라우드 보안, 정부 및 기업 전용 양자통신 네트워크를 구축·운영

귀커양자 (国科量子)	2017년	중중국과학원 계열 기업으로 임직원 약 120명, 전국 양자통신 핵심 운영사	전국 양자간선·도시권 양자 전용망 구축,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 운영 및 양자통신 상용화를 추진
시허양자 (羲和量子)	2019년	약 60명, 양자정밀측정 및 센서 분야 전문 중소혁신 기업	양양자센서, 원자자력계, 양자항법 모듈을 개발하고 지질·해양·의료 분야 검사 장비에 응용
원텐양자 (问天量子)	2009년	임직원 약 150명, 양자통신 핵심 부품 전문 공급 기업	양자 난수 발생기, 양자키 단말기, 양자 암호 모듈을 연구개발하고 양산 공급
야오정양자 (幺正量子)	2022년	원사팀 인큐베이션기업으로 임직원 약 50명, 이온 가둠 방식 양자계산 신흥기업	이온 트랩 방식 양자컴퓨터 하드웨어, 양자칩, 양자 측정제어 시스템을 연구개발
타이위이양자 (太微量子)	2022년	중국과학기술대학 박사팀 창업, 임직원 약 30명의 첨단기술 기업	이온 트랩 입자 제어 시스템, 대학 및 연구소용 양자 실험·교육 장비를 개발·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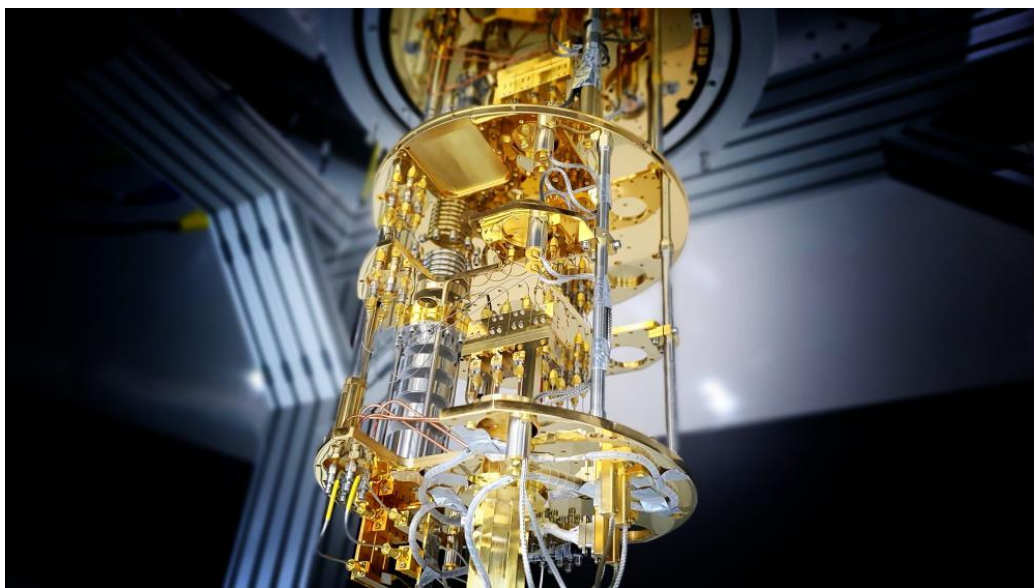
양자대로에는 선두기업 외 양자의 거리에 국가급 기관도 보유하고 있다.

기관명칭	설립연도	규모	업무개요
중국과학기술대학교 선진기술연구원	2011년	연구인력 500여 명, 산학연 성과 확산 핵심 플랫폼	양자정보·인공지능·첨단장비 원천기술 사업화와 창업 기업을 육성
중국국가양자실험실	2017년 (국가 정식 승인)	연구인력 300여 명, 국가급 최고 수준 양자 연구 플랫폼	양자통신·양자계산·양자정밀측정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국가 중대 연구과제를 주관

연구실 단계를 넘어 산업 생태계로 확산

'양자대로'라는 이름이 자리잡게 된 데는 분명한 배경이 있다. 2009년, 중국 과학원의 판젠웨이(潘建伟) 원사 연구팀이 중국 최초의 양자통신 상용화 기업 설립을 추진하던 당시만 해도, 양자 기술은 일반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었다. 당시 양자 관련 전공 졸업생들 역시 극소수만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페이 첨단산업개발구측은 회의적인 시선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해 5월, 판젠웨이 원사는 평청즈(彭承志) 등 연구진과 함께 안후이(安徽) 양자통신기술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이는 현재 귀둔양자(国盾量子)의 전신이다. 이후 양자기술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귀이양자(国仪量子), 원토펬양자(问天量子), 귀성양자(国盛量子) 등 관련 기업들도 잇따라 등장했다. 2017년에는 중국 최초의 양자컴퓨터 풀스택 개발 기업인 번위안양자(本源量子)가 설립됐다. 현재는 중국 주요 양자컴퓨팅 기업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으며, 다수의 양자컴퓨터를 개발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정책 지원

'양자대로'의 부상은 허페이이 기술 혁신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현재 허페이 첨단기술구에서 양자 분야 연구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 인력은 600명을 넘어선다. 또한 허페이이 양자 정보 산업 관련 특허는 중국 전역의 12.1%를 차지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글로벌 양자컴퓨팅 기술 발명 특허 순위에서는 번위안양자가 글로벌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중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0위권에 포함됐다.



허페이는 2020년 7월 핵심 산업 육성 체계를 본격 도입하면서 양자산업을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이후 <허페이시 양자정보 산업 발전계획(2020~2030년)(合肥市量子信息产业发展规划(2020-2030年))>을 발표하고, 연구개발 지원부터 기술 사업화, 시범 사업, 응용 환경 구축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기술 성과의 산업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번위안양자의 장후이(张辉) 총경리는 "허페이는 중국과학기술대학의 인재를 기반으로 양자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정책 실행력이 높고 장기적인 육성 방향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귀성양자(国盛量子)의 자오보원(赵博文) 총경리 역시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2019년 창업 초기부터 현지 정부로부터 큰 지원을 받았으며 "허페이는 창업 육성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기술 사업화와 입지 선정, 투자 유치 정책 등에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

한 거리에서 출발해 산업 클러스터로 확장된 허페이의 양자산업은 선제적인 산업 육성과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앞으로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양자 과학기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초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양자대로'는 안후이성의 미래 산업 육성 전략과 기술혁신 역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꼽힌다.

참고자료

- ◆ 신화망(新华网). 활기 넘치는 중국 연구 여행 | 안후이성의 미래 산업, 강력한 과학 기술 혁신 동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번창하고 있다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50703/de970888de5a45b28588f1173b28e3cb/c.html>
- ◆ 상관(上观). 허페이의 알려지지 않은 거리, 아무도 그곳의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https://export.shobserver.com/baijiahao/html/618611.html>

KIC 뉴스



2026 WRC 연계 한중 로봇 혁신 파트너십 워크 모집 공고

31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32



2026 WRC 연계 한중 로봇 혁신 파트너십 워크 모집 공고

WRC 2026

한·중 로봇 혁신 파트너십 워크

KOTRA × KIC중국 | 참가기업 모집공고

모집개요

세계 로봇 산업의 최전선인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로봇컨퍼런스(WRC)를 무대로, KOTRA베이징무역관과 KIC중국이 함께 한국 로봇·AI 혁신기업을 위한 자리를 만듭니다. 중국 로봇 공급망 진입을 원하는 기업, 중국기업과 기술협력/투자유치를 원하는 기업, 중국 로봇산업 생태계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기업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의 행사에 담았습니다. 중국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국의 로봇 혁신 기업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개요

- 주최·주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무역관),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한국연구재단, 중국전자학회(CIE), 세계로봇협력기구(WRCO)
- 기간: 2026.08.18(화) ~ 2026.08.21(금)
- 장소: 베이징 이창국제회전중심
- 연계 전시회: 제11회 세계로봇컨퍼런스

주요 프로그램

- ✓ 1:1 메이저 中로봇기업 파트너링 상담
- ✓ 한·중 투자자·선도기업 대상 IR 데모데이
- ✓ WRC 전시장 내 한국관 개별 부스 제공 (선택 사항)
- ✓ 베이징 첨단 로봇기업·혁신기업 현장견학

*자원: 참가기업 3박 숙박비

*전시부스 신청 기업은 8.23까지 현장 상주 필수

모집안내

- 모집 규모: 총 15개사 이내
- 모집 대상: 로봇·AI 분야 부품·모듈·제어솔루션 기업 및 딥테크 스타트업
- 모집 기한: 2026.05.24 18:00까지 (중국시간 기준)
- 접수 방법: 하단 QR코드 접수->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선정절차: 신청제출 → 서류심사 → 결과통보

문의처

- 이메일: wenjing@kicchina.org
- Tel: +82) 070-4084-1234 +86) 010-6780-8840



KIC 신청링크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명칭	기간	장소	분야
아시아 의료 및 보건 정상 포럼	2026.05.11-2026.05.12	홍콩	의료건강
2026년 제6회 국제 정보 기술 및 클라우드 컴퓨팅 컨퍼런스(ITCC2026)	2026.05.22	광저우	정보 기술
2026년 제7회 국제 무선 통신 및 빅데이터 컨퍼런스(CWCBD2026)	2026.05.22	광저우	정보 기술
2026년 제7회 IEEE 국제 컴퓨팅, 네트워킹 및 사물 인터넷 컨퍼런스(CNIOT 2026)	2026.05.22	광저우	정보 기술
InnoTech 2026: 혁신 및 기술 경영 컨퍼런스	2026.05.22-2026.05.25	베이징	인공지능
2026년 (제4회) 국제 자동차 신소재 컨퍼런스 (ICNMAI2026)	2026.05.27-2026.05.28	안후이	자동차
제6회 중국-해외 광산업 공급망 발전 포럼	2026.06.10	베이징	에너지
2026년 무인 항공기(UAV) 응용 및 제어 국제 컨퍼런스	2026.06.25-2026.06.27	베이징	인공지능
2026 중국 스마트 에너지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6.7.09-2026.07.11	청두	에너지
2026년 제11회 국제 신호 및 영상 처리 학회 (ICSIP2026)	2026.7.17-2026.07.19	창저우	정보 기술
2026년 인공지능 및 정밀의료 국제 심포지엄 (AIPHC)	2026.7.17-2026.07.19	청두	인공지능
제10회 국제 원격탐사 기술 및 응용 컨퍼런스 (ICRSTA)	2026.7.17-2026.07.19	청두	정보 기술
제6회 국제 의약화학 및 신약 개발 심포지엄 (MCDD)	2026.7.17-2026.07.19	청두	의료건강
제8회 기계 학습, 패턴 인식 및 지능형 시스템 국제 컨퍼런스(MLPRIS)	2026.7.17-2026.07.19	청두	인공지능



중국 창업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